

# 중등학교 도자공예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유리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 A Study on Instruction Plan for Education of the Ceramic Art and Crafts in the Middle School

Yu-Li Ryu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도자공예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중의 하나로써 한국의 미와 문화의 특질을 보여준다. 역사적 관점에서 도자공예보다 긴 전통을 소유한 문화재는 없으며, 쓰임새도 도자공예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하는 器物은 없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대부분이 도자공예에 관해 감상 작품만을 예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도예기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교과서 전통문화 수용방식의 특징은 전통문화가 교육내용의 중심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주변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과정에서 도자공예의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도자공예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면과 입체 표현을 통하여 조형미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이해와 경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표현해보고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예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주제어** : 도자공예, 도예기법, 전통문화, 조형미술, 도예문화

**Abstract** It is said that ceramic arts which reflects the spirit of the age and cultur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ultural assets in Korea. Ceramic arts has the longest tradition and it has been used in our everyday lif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Unfortunately, most textbooks we use nowadays just show some art works for appreciation. It is impossible to teach unique techniques of ceramic arts with those textbooks. Traditional culture is not considered as a main part of educational contents but surrounding elements. Therefore it is hard for students to learn about our traditional culture deeply and it is also difficult to know the importance of the ceramic arts in secondary schools. Through the education of ceramic arts students can understand our traditional culture and they can also experience the formative arts by using plane and dimensional techniques. Teachers have to focus on historical background, types, functions, and sense of beauty of ceramic arts when they teach students in school. Students can use the knowledge in their daily lives. The education of ceramic arts encourage students to create new culture for ceramic arts.

**Key Words** : Ceramic arts, Ceramic techniques, Traditional Culture, Formative Art, Ceramic culture

Received 1 July 2014, Revised 4 September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Yu Li Ryu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olor4655@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목적

도자공예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 계승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흙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자연스럽게 도자공예에 친숙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도자공예가 완성되기까지 공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도자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 전통문화 수용방식의 특징은 전통문화가 교육내용의 중심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주변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자공예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하고 덩어리의 구조성, 공간성, 운동감, 빛의 효과를 알게 한다. 더 나아가 입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탐구적 태도를 기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 결국 학생들은 도자공예의 재인식과 지적 향상으로, 우리의 훌륭한 도자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자문화로 만들게 된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도자공예교육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의 필요성 및 도자공예교육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및 중등교과서의 도자공예교육내용을 면밀 분석하고 관련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도자공예교육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본론

### 2.1 도자공예의 역사적 배경

#### 2.1.1 도자공예의 개념

도자기란 말은 원래 도기와 자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도기와 자기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자기는 이들의 합성어에 해당한다. 먼저 도기는 어느 정도 흡수성이 있는 백토를 그냥 굽거나 시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기는 흡수성이 없고 강도와 경도가 도기

에 비해 강한 태토에 유약을 시유하여 구운 것을 말한다.

도예란 도자기에 관한 미술, 공예 또는 그 예술의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정신적 욕구와 자연의 조화로써 창조되어지는 예술작품이나 그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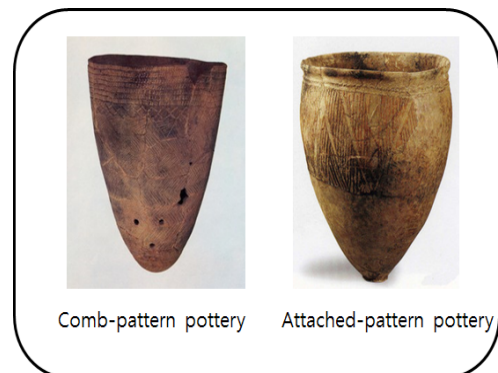
다시 말해 흙을 원료로 하여 형태를 성형한 후 불에 구어 내는 작품 활동을 말하는데 불에 구어진 기틀은 소성 온도에 따라 밀착력이 달라지며 물이 여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조들은 유약을 발견하였고 사용하게 되었다. 도자공예는 이런 특유의 성질과 유약의 역할로 만들어지는 작품 활동을 말한다.

#### 2.1.2 도자공예의 역사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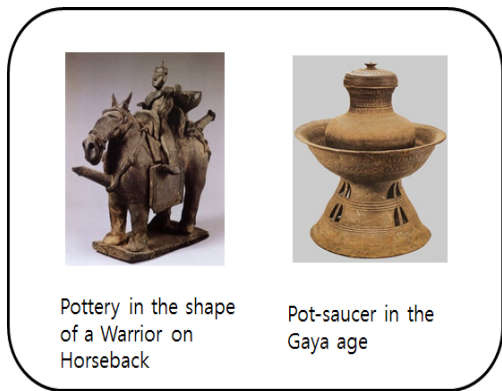
도자공예에 나타나는 우리 문화사상의 특색은 실로 유구하다. 한국의 도자기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양이 많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0만 여점 중에 3~4만여 점이 도자기이다.

호암 미술관이나 호림 박물관, 여러 대학의 박물관 또는 국외에 있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박물관의 한국 실, 대영 박물관에 앞으로 설치될 한국 실, 국립동경박물관에 설치된 한국 실 등 한국 관계의 문화재 전시실 등에 진열되거나 진열될 예정에 있는 유물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역시 도자기이다.

또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에 가보면 선사시대의 빗살무늬 질그릇을 비롯해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물론 소수의 불상과 다른 진열품도 있으나, 대부분이 도자기이다.



[Fig. 1] Pottery in the Neolithic Age



[Fig. 2] Pottery in the Three Kingdom Period

고려시대실과 조선시대실, 동원기념실과 수정 기념실도 마찬가지이다. 도자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문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도자기의 수는 매우 많다.



[Fig. 3] Ceramics in Goryeo & Joseon Dynasty

도자기에는 흔히 그 시대의 삶과 꿈이 담겨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시대의 미적 감각과 특징들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백자가 순색을 사용했다든지 또는 형태가 요란하지 않고 단순한 것은 당대의 중국과 일본의 자기와 뚜렷이 대비된다. 때로는 익살스럽거나 자연스럽고 간결하거나 청초하기도 한 점은 한국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서 특히 도자기에서 잘 나타난다.

도자공예는 공예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인 것이다.

## 2.2 미술교육에서 도자공예교육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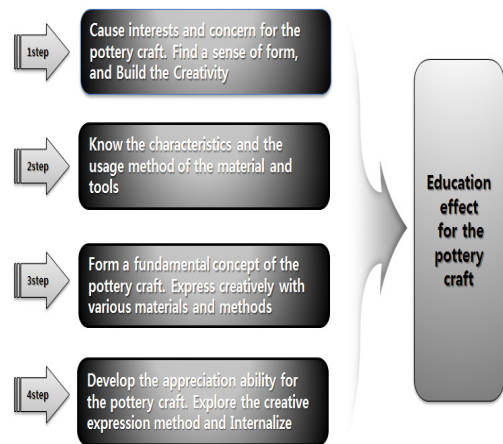
### 2.2.1 도자공예교육의 의미

조형 활동 중 도자공예는 여러 가지 입체 형태를 만들어 내며 공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찰흙 만들기를 비롯한 도자공예는 부드러운 재료를 직접 주무르면서 작업할 때 그 촉감에서 쾌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마음의 긴장을 해소한다.

이런 정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근육운동과 조형감각이 협응하는 능력, 사물에 대한 입체적 감각과 인식 능력, 3차원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 등을 신장시켜 준다.

학생들은 도자공예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력을 키우고, 덩어리의 구조성·공간성·운동감, 빛의 효과 등을 알고 입체의 아름다움을 느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Table 1> Education effect for the pottery craft



### 2.2.2 미술교육과정에서 도자공예교육 영역

미술교과서의 체계는 미술과 생활, 보고 나타내기, 느낌과 상상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작품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흙을 재료로 한 도자공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있는가를 표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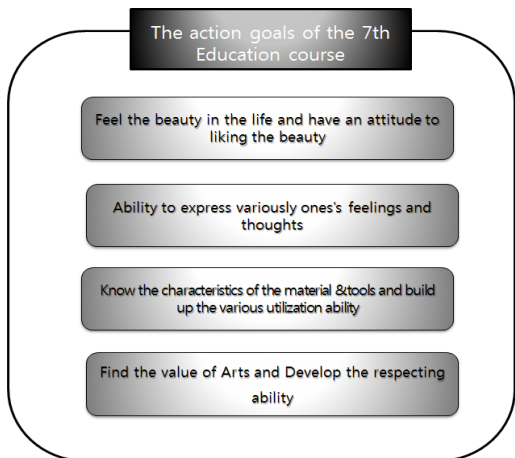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7th Art textbook by fields

	publisher	painting		plastic		design crafts		%
		piece	%	piece	%	piece	%	
the 7th art textbook	gyoakssa	81	23.5	25	8	15	66.7	37.1
	gyoakssa research official	67	16.4	31	6.5	23	82.6	34.7
	korea textbook	69	18.6	30	6.7	14	78.6	46.0
	doosan	43	16.3	30	10	47	14.9	18.6
	central education	72	30.6	22	40.9	34	50	38.7
	jihak	84	27.4	43	30.2	52	40.4	40.4
	total	416	22.8	181	17.1	185	45.9	33.7

2.2.3 도자공예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개발하여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교과목표로 삼고 교과내용과 관련된 행동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able 3) The action goals of the 7th Education course



이러한 목표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다양한 표현 활동의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자공예교육을 통한 다양한 표현활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따라

서 도자공예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수업의 목표와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기

2.3.1 제한적인 재료 표현기법

재료 표현기법에서 교과서의 대부분이 환조, 부조,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도자공예의 기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창의적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정이나 표현의도에 잘 맞는 형태와 기법을 선택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3.2 한정된 도자공예 예시작품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품을 신중히 제시하여야 한다. 현 교과서는 도자 공예의 입체적인 모양이나 그릇의 제작에 치우쳐 있다.

교과서의 예시작품은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시작품을 통하여 도자공예의 흥미를 유발 시키도록 해야 한다.

2.3.3 단편적인 도자공예 주제

주제면 에서 각 과정마다 수준을 고려하여 연계성이 있다고 제시하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도자공예와 관련된 참고작품으로 항아리와 그릇 등에 국한되어 도자공예란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자공예를 주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 주어야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위기와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양한 재료들이 유효 적절히 활용되는 교과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2.4 도자공예교육의 발전적 지도방안

2.4.1 현장학습적 지도방안

여건이 허락되는 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교육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전시장·박물관·미술관 견학, 고적답사, 각종 문화행사 참가 등 학교 밖의 사회교육기관을 적극 이용하는 현장 학습 여건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자기를 활용한 전통미술지도 과정에서도 도자기가 전시된 박물관을 견학해보는 활동, 도자기 공방을 직접 방문·체험해 보는 활동, 도자기 제작 과정을 견학하는 활동 등 다각적인 현장학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4.2 다양한 자료(실물, 시청각 등)를 이용한 지도 방안

전통미술지도에 관한 자료와 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풍부한 도자공예수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실물자료, 인적자원 등 생생하면서도 학교생활과 밀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이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자원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좀 더 흥미롭고, 생생하고,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도자기를 이해, 감상,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4.3 최적의 학습환경 조성방안

바람직한 지도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직접적인 지도 방법의 개선이나 자료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환경 조성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물적 측면에서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학습지도에 필요한 실내·외 환경 조성(예 : 교실, 복도에서의 도자공예 코너 조성·운영 등)을 비롯하여, 독립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갖춘 미술자료실 운영, 학교 밖의 지역사회 환경조성(학교 주변에 생활과 관련된 도자공예 작품 설치 등) 등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 측면에서의 환경조성도 갖추어 주어야 된다. 학교 방송시간을 활용하여 도자공예를 소개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Table 4) The progressive teaching plan

Teaching Plan for Education of the Ceramic Art and Craf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ching Plan of Field trip ( ex : class trip to the ceramic museum )</li> <li>➤ Teaching Plan using a variety of materials ( ex : the real and audiovisual materials )</li> <li>➤ Promo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 ex : The Ceramic Art corner at the classroom )</li> </ul>

### 3. 결론

도자공예교육은 과거 미술작품의 단순한 수용과 모방이 아니라, 그것의 바른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현대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여 오늘에 맞게 새롭게 표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활용함으로써 전통미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도자공예교육 또한 단순히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표현기법을 익히고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형식적으로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술의 영역인 이해, 감상, 표현을 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지도되어야 한다.

이해와 감상은 실제 속에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수업활동 속에서는 이해와 표현, 감상이 함께 이루어진다.

지각이든, 직관이든, 사고이든, 이성이든 모든 몸의 작용이며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도자공예교육은 도자공예의 제작배경·이유·종류·기능·역사·미의식 등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검증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표현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예문화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도자공예교육은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세계 최고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Young-Won Kim, Pottery Craft, Sol Publishing co., 2005
- [2] Byung-Sun Bang, The man-like bowls, Pottery, BoRim Press, 2006
- [3] Yong-Yi Yun, The our beautiful Pottery, Hakgojae, 1996
- [4] Hwi-Jun An, Won-Yong Kim, The History of Korea Art, SiGongSa, 2003

### 유 유리(Ryu, Yu Li)



- 1995년 2월 : 한밭대학교 공업디자인과
- 2006년 2월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석사)
- 2013년 8월 : 공주대학교 예술대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디자인, 미술교육
- E-Mail : color4655@gmail.com